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봉동·화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

완주군 봉동읍과 화산면이 농촌중심지
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
관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
규(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1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선정된 사업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
성화사업(180억원), 화산면 기초생활거
점 육성사업(40억원)으로 5년간 국비
154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박성일 완주군수는 기획재정
부와 농식품부 등을 연달아 찾아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
활동을 한 바 있다. 사업 선정으로 봉동
읍과 화산면은 배후마을 수요를 고려해
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
화·복지서비스 전달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모단
계에서부터 주민들로 이루어진 추진위
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계획부터 준공까지 사업전반
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 균형 발전
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를 모
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 성료

완주군 테니스장에서 제4회 안중근 평
화재단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성황
리에 마무리됐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8일 2019년
제4회 안중근 평화재단 전북동호인 테
니스대회가 완주군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이번 테니스 대회는 전북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여자국회부, 여자금배부, 여자는
배부,여자동배부, 남자은배부, 남자동배
부, 신인부 7개부(약 200여팀)가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선수들 비롯해 테니스 관계자 600명이
찾아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
다. 이날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
량을 선보였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건전
한 여가활동과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했
다. 특히 동호회 회원들은 완주군 테니
스장의 시설에 감탄하며, 지리적 접근성
규도, 주차 편의 등에 만족감을 표시했
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테니스를 사랑
하는 열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즐기는 선
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완주
테니스장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
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도비 562억원 확보

김제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서

2019년 9월 현재 43건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43건이 선정돼 국·도비 562억원(국
비 432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
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연초부터 중앙
부처의 전략사업을 파악하고 공모사
업별 맞춤형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박준배 김제시장을 필두로 간부공무
원과 주요사업 실무자들이 국외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적극
적으로 사업 의지를 피력해 거둔 결

과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23건) 대
비 2배 정도 증가한 규모로 '경제도
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 토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 시민들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공모선정 사업은 공덕·황
산·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김제역 풍수해위험생환경 종합정비
사업,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북
합청년농 조성, 농촌 신활력플러스사
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며 시민이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다.

또한 하반기에 발표를 앞둔 성산지
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산물 산지유
통센터(APC) 지원사업의 공모선정
여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열악한 재정여
건을 극복하고 시민 숙원사업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은 국·도비 확보
라는 생각으로 김제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
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모사업 대응책을 마련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
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는 지난 6일 김제시 통합관계센터를 방문해 차량털이 절도 등의
자 검거에 성과를 올린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제 파수꾼, 차량털이절도 용의자 검거

김제경찰서장 표창장 수여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지
난 6일 김제시 통합관계센터를 방
문해 그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감으로 성실하게 관제업무를 수행
하여 차량털이 절도 용의자 검거
에 성과를 올린 관제요원에게 표
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
다.

김제시 통합관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새벽에 차량털이절도
용의자가 구산로터리 주변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내부를 살펴며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모
습을 관제 후 계속 추적하던 중
잠금 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을 관제 후 용의자의 위치를
끝까지 추적하여 차량털이절도 용
의자를 현장에서 검거 하는데 기

여하였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김제시
통합관계센터 관제요원과 경찰관
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범죄해결
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
는 안전한 김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며 노고를 치하
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제시 김중배 정보통신과장은
"김제시 통합관계센터는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시민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집중 관
제로 올해 들어 3건의 범죄를 해
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고,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의 선봉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문화가 있는 날' 전북 유일 선정

문화부 공모사업서

민경강 중심 스토리텔링화 주목

완주군이 전북 지자체로는 유일하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
업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기반
으로 지자체가 자유 기획한 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군은 관내 문화기획자들의 아
이디어를 받아 (사)완주군생활문화
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임석주)
에서 낸 '만경 8경 그 강에 오면'을
공모해 선정됐다.

사업예산은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이 책정되고 지원대상과 규모
는 지자체 5대5 매칭과 민간협업으
로 20~30개 프로그램을 각 1억원 내
외로 지원하게 된다.

완주군의 '만경 8경 그 강에 오면'
은 만경강의 분류와 지류에 12개 읍
과 면이 접해 있는 점을 착안해 강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사)완
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만경 8경 그 강에 오면'이 선정됐다.

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만경 8경중
'비비낙안', '신천옥결', '봉동인락',
'세심정류' 네 개의 풍경을 스토리
텔링화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임석주 이사장은 "만경 8경을 테마

로 동상에서 삼례까지 문화벨트가
연결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비비정
과 독방 뱃길 등에서 새로운 문화
예술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취지로 기
획했다"고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축제, 읍면동 음식부스 특화음식 개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1회 김
제지평선축제 읍면동 음식부스를 설
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음식부스는 각 읍면동의 생활개선
회 또는 새마을 부녀회 등 사회단체
가 참여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
비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특화음식으

로 청하면 연잎밥, 진봉면 보리국수,
금산면 원평순대국, 광원면 치즈감자
전 등 다양한 메뉴로 선보인다.

이번 음식부스 참여자는 청결한 조
리과정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교육을 비롯하여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을
받았다.

또한 작년과 달라진 점은 높은 음
식 가격으로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
고 싶지만 부담을 느끼고 먹을까하
던 고민을 없앨 수 있도록 하향조정
했다는 점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제장에서 먹을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읍면동마다 특화음식
을 준비하였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9일 박준배 김제시장 주재
로 부시장, 국소장 및 관련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지방분
권, 4차산업 등 시대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김제시의 특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발전 패러다
임 제시 및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금년 1월 착
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청 전체 부서
장 인터뷰 및 시민과 공무원 대상 설
문조사 실시, 읍면동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
으며 주요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현황
조사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또한 분야별 심과소 담당 40여명으
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연구
진과의 두차례 워크숍과 소규모 아이
디어 회의 등을 통해 과제 내용을 심
화·발전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난 7월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정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의회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 과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개
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종점
검의 자리로써 2030 김제비전을 제시
하고 10대 전략과제, 분야별 핵심과제
들을 보고하였으며 김제시 간부공무
원과 연구진들의 사업내용에 대해 발
견적인 의견 교류의 순으로 진행되었
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